



“原電건설은 불가피하나 신중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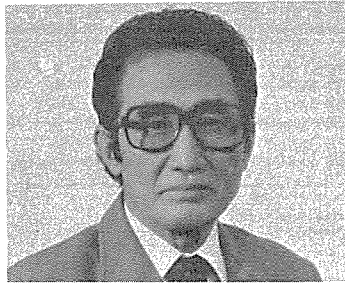
전문가11명으로 發足 · 國民福利차원서 활동

부존자원, 특히 에너지자원이 매우 결핍된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원동력인 전력생산은 석탄, 석유와 더불어 지금은 原子力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1959년에 原子力法이 제정, 공포되고 난후 10년이 지난 1968년에 原電도입을 위한 계약업무가 시작되었고 그후 원자력발전이 실제 상업발전에 들어간것은 1978년의 일이었다.

그동안의 경제산업발전 과정에서 「전력」이 끼친 공적과 영향은 절대적이랄수 있을 정도였으나, 또 지금은 전력이 남아돌아 「전기 좀 써주십시오」라는 韓電의 홍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전력사정이 오늘과 같은 수준이 된것은 순전히 原子力발전 덕분이랄 수 있다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原電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광범한 지역의 住居제한과 범규의 엄격한 준수가 요구됨으로써 原電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원전건설을 추진, 운영함으로써 原電 주변주민들에게 불안과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케한 경우가 없



朴益洙회장

지 않았습니니다.』

최근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제반 문제점을 순수한 민간전문가적 입장에서 연구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한 『원자력발전안전민간협의회』의 첫 회장에 선임된 朴益洙씨(66·韓國과학저술인협회 회장)는 널리 알려진대로 우리나라 과학사 및 과학사상

『협의회는 민간감시기구 역할만을 수행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원전설립은 그동안 철저한 정보통제하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돼 자연히 그 과정에서 많은 오해와 의혹을 일으켰습니다. 민주화가 추진되고 있는 최근의 사정을 보면 反核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원전주변 주민들이 각종 피해보상을 호소하는 이유도 이러한 누적된 감정의 표출이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박회장은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의 태동기에 원자력발전소 기술조사단장으로 선진국 원자력발전소를 순방하고 제출한 그의 보고서가 古里원전설립의 기초가 되는등 원자력시대를 연 개척자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박회장은 原電반대론자는 아니다. 에너지원의 뚜렷한 대안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발전은 에너지 다원화, 안정화는 물론 정책·경제적 측면에서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에서 서 있다.

原電의 합리적 운영위해 奉仕

民間감시기구역할 수행할터

사의 개척자로서, 또 원자력상임위원등 공직의 대부분을 원자력분야에서 헌신한 전문가로서 남은 생애를 원자력의 안전대책을 추구하고 원자력이 갖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감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다.

『협의회는 현재 전문적인 식견과 특별한 관심을 가진 11명으로 우선 발족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원전주변주민 및 국민의 복리증진과 원전사업의 합리적인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순수한 자세로 봉사할 것입니다.』 <健>